

제 235호 · 2013년 12월 18일

해운 · 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# KMI

## 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  M A R I T I M E   I N S T I T U T E

### | CONTENTS |

#### 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수저우항(苏州港) 2020년까지 물동량 6억 톤 처리 예상
2. 런던게이트웨이, 유럽의 공급사슬 재편 기대
3. 아시아 화주 협의회, 심천 연례회의에서 P3 공동운항에 이의 표명
4. 중국 주요 도시, 제2차 자유무역시범지구 지정 획득 경쟁

#### 물류시장동향

1. DHL Express, 독일 라이프치히 물류센터 확장
2. CMA CGM, 유럽 및 지중해-서아프리카 서비스 개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## 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## □ 수저우항(苏州港) 2020년까지 물동량 6억 톤 처리 예상

- 수저우항의 화물 처리량은 2012년과 올해 각각 4.27억 톤, 4.6억 톤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과 2030년의 물동량은 각각 6억 톤, 7.5억 톤으로 증가할 전망
  - 수저우항은 상해국제항운중심에 위치하여 중국 연해 주요항만과 운송거점을 연결하는 물류허브 역할 수행
- 수저우시 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증가하는 물동량을 대응하기 위해 교통운수부와 성 정부는 <수저우항종합계획(苏州港总体规划) 2013~2030>을 추진
  - 계획에 따르면 항만 안벽 길이는 약 86.9km이며 그 중 심수안벽의 길이는 약 83.7km로 장지아강항(张家港), 창수(常熟), 타이창 3개 항만구(太仓三个港区) 등 “1항만3구역”으로 구분
- 장지아강항은 장강 중상류 물류 환적능력을 제고시키고 석탄, 철광석, 곡식 등 벌크화물 및 컨테이너, 액화품 등의 처리 능력을 증대할 계획
  - 성 정부는 창산(长山), 장지아강항(张家港), 화학공업단지(化学工业园), 뚤안산항(段山港), 즈진공업단지(冶金工业园), 동샤 6개 작업구(东沙六个作业区) 등에 총 206개의 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처리능력을 3.6억 톤, 320만 TEU로 증대시킬 계획
- 창수항은 창수시 경제발전과 항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석탄, 잡화, 액화품 및 컨테이너 운송을 발전시킬 계획
  - 주요 개발 지역으로 싱화(兴华), 진징탕(金泾塘), 티에황샤 3개 작업구(铁黄沙三个作业区) 등이 있으며 총 57개의 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처리능력을 7,500만 톤, 60만 TEU로 증대할 계획
- 타이창항은 지양수성(江苏省)과 수저우시, 창강연해지역의 컨테이너 화물 운송, 철광석, 석탄 환적 운송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
  - 주요 개발 지역으로 루허(鹿河), 신징(新泾), 탕시(荡茜), 푸차오(浮桥), 시징 5개 작업구역(茜泾五个作业区)이 있으며 총 163개의 선석을 건설하여 연간 처리량을 3.3억 톤, 2,147만 TEU로 증대시킬 계획

자료 : www.port.org.cn, 2013.12.18.

박여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yjp06@kmi.re.kr)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

## □ 런던게이트웨이, 유럽의 공급사슬 재편 기대

- DP World사의 런던 게이트웨이(London Gateway)는 심수항만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복합운송 물류센터를 통해 영국, 유럽 및 이를 넘어서까지 공급사슬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런던 중심에서 25마일(약 40km) 거리에 위치한 항만과 대규모 복합운송 물류단지는 영국의 내륙배송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
- 런던 게이트웨이는 장기적으로 2.7km 길이의 안벽에 총 6개 선석으로 계획되었으며, 3단계로 나누어 개장
  - 첫번째 선석은 2013년 11월에 개장되었으며, 두 번째 선석은 2014년 부활절 즈음, 세번째 선석은 2014년 말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
  - 두번째 선석이 개장되면 런던 게이트웨이의 하역능력은 연간 150만 TEU, 세번째 선석이 개장되면 연간 하역능력은 250만 TEU로 증가할 전망
  - 현재 영국 항만 물동량의 40% 이상이 아시아 및 중동발 화물이며, 해당 루트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주로 투입

### < 런던 게이트웨이 >



출처 : [www.dhlsupplychainmatters.dhl.com](http://www.dhlsupplychainmatters.dhl.com)

- 런던 게이트웨이는 높은 자동화 수준 덕분에 악천후로 인한 작업 중단이 다른 경쟁 항만에 비해 적으며, 이러한 항만 안정성으로 아시아-영국 운항 선박은 총 운항시간(30일 정도)의 10%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또한 신규 항만에서 영국 각지로 대형 트럭을 통해 운송할 경우 기존의 방식보다 연간 6,500만 마일(약 10,459km)의 운송거리 단축이 가능
- 이는 매일 2,000대의 화물트럭 운영을 감축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
-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가 목표한 925만  $\text{ft}^2$ (860 $\text{km}^2$ ) 규모의 창고시설 및 연계 도로와 철도가 완공되는 데에는 5~10년 정도 소요
  -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총 처리능력의 약 1/3의 완성될 것으로 예상
  - 물류단지 첫 입주자인 Marks & Spencer의 배송센터(95만  $\text{ft}^2$ , 약 88.3 $\text{km}^2$ ) 건설이 확정
  - 또한 40만  $\text{ft}^2$ (약 37.2 $\text{km}^2$ )의 공동사용 시설은 2014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
- 런던 게이트웨이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집 지역에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적절한 창고로서 역할 수행 가능
  - 현재 런던 게이트웨이 50마일(약 80km) 반경 내에 1,500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, 매년 1,000만 명이 런던을 방문
- 기업들은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를 이용함으로써 공급사슬의 효율성 개선 및 비용절감, 그리고 수요증가에 대응 가능
  - 영국의 기존 항만을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은 화물을 중앙의 집배송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목적지로 운송하고 있어 종종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
  - 런던 게이트웨이 물류단지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컨테이너를 영국으로 수입, 해당 컨테이너의 내품을 빠르게 재처리하여 소매점이나 고객에서 바로 배송 가능
  - 따라서 런던 게이트웨이가 유럽 물류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그러나 런던 게이트웨이의 잠재적 복합운송 편익은 전략적 철도화물 네트워크(Strategic Rail Freight Network, SRFN)<sup>1)</sup>의 시작이 늦어지면서 감소 가능성 제기
  -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철도는 여전히 범유럽 루트에서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화물 운송수단 역할 수행 기대

자료 : [www.lloydsloadinglist.com](http://www.lloydsloadinglist.com), 2013.12.12.

김은우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[hisgrace@kmi.re.kr](mailto:hisgrace@kmi.re.kr))

1) SRFN은 영국 철도 수송능력의 한계를 해결하고, 모달 쉬프트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철도화물 인터체인지 네트워크와 전략적 입지에 있는 창고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됨.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영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

## □ 아시아 화주 협의회, 심천 연례회의에서 P3 공동운항에 이의 표명

- 아시아 화주 위원회(Asian Shippers Council, ASC)는 중국 심천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머스크, MSC, 그리고 CMA CGM의 P3 네트워크에 대해 이의를 표명
  - 세계 최대 3대 선사들의 선박 공유 협정은 컨테이너 역사상 가장 큰 선복량 집중 유발
  - ASC는 P3가 컨테이너 화물 시장의 향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 시장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
  - ASC 회원 기관 중 하나인 중국화주협회(China Shippers Association, CSA) 역시 중국 국가 개발개혁위원회, 교통부, 상무부 등을 포함한 중국 정책당국에게 중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P3 공동운항을 막아달라고 요청
  - ASC는 중국 정부에 대해 컨테이너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이저인 P3의 승인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청
- 또한 ASC는 컨테이너 중량 확인을 의무화 하는 IMO의 수정 초안에 강력히 반대의사 표명
  - ASC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IMO의 어떤 회의에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IMO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힘
  - 그리고 ASC는 선사가 중국 상하이 해운거래소에 해운운임을 30일전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찬성
- 그 외 연례회의에서 ASC는 인도네시아 국가 화주 위원회(Indonesian National Shippers' Council, INSC)의 Toto Dingantoro씨를 ASC의 회장으로 선출
  - 부회장으로는 Cai Jia Xiang CSA 부회장 선출

자료 : [www.americanshipper.com](http://www.americanshipper.com), 2013.12.11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[hmjeon@kmi.re.kr](mailto:hmjeon@kmi.re.kr))

## □ 중국 주요 도시, 제2차 자유무역시범지구 지정 획득 경쟁

- 상해자유무역시범지구가 지정 되면서 광저우, 충칭, 텐진, 칭다오 시 등 제2차 자유무역시범지구 유치 경쟁전개
  - 제2차 자유무역지구 심사는 12월에 진행되어 내년 5~6월 사이에 그 윤곽이 드러날 예정
  - 각 성정부의 자유무역지구 유치에 대한 신청 접수 문의를 중국 상무부로 쇄도하는 가운데 모든 결정은 국무원에서 일괄 처리하며 상무부는 그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는 수준이라고 언급
  - 현재 충칭, 텐진, 칭다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
- 충칭은 서부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 역할에 중요한 기능에 중점
  - 상해가 양쯔강의 꼬리에 위치한다면 충칭은 머리에 위치한 지경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상해의 발전과 함께 서부 전역에 경제적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 - 충칭 도심의 남부쪽에 위치한 巴南区(파남구)와 两江新区(양강신구)에 자유무역원구를 설치 할 계획을 수립
- 텐진은 滨海新区(빈해신구)의 자유무역구 지정을 위해 국무원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, 5,700억 위안의 투자금을 준비
  - 빈해신구는 건축면적이 950만㎡이며 2012년 말까지 14개의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15개동의 건물을 시공
  - 아울러 텐진은 동강보세항구(东疆保税港区)를 자유무역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육성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, 텐진의 용자 및 임대업무의 총액이 전국의 1/4 규모이기에 중국 금융 업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
- 산둥성정부 역시 국무원에 칭다오자유무역항구설립을 신청
  - 자유무역구 설립 및 개발구의 집약발전 검토를 위해 산동에 중·한·일 자유무역구 건설 의제에 대해서 산둥성 상무부 내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항구와 자유무역구 설치까지 고려
  - 칭다오자유무역항만의 면적은 29.6km<sup>2</sup>로 상해자유무역구의 면적 28.78km<sup>2</sup>에 비해 규모가 다소 큼

자료 : www.sina.com, www.sofun.com, 2013.12.11.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## 물류시장동향

## □ DHL Express, 독일 라이프치히 물류센터 확장

- DHL Express는 1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해 라이프치히 물류센터의 처리능력을 50% 향상시킬 계획
  - DHL Express는 동독일 중부의 공업도시인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운영면적을 2배로 확장하여 유럽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할 계획을 발표
  - DHL은 전세계에 대표적인 3개의 글로벌 허브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한곳이 유럽을 대표하는 라이프치히 물류센터
  - 물류센터 확장으로 확보될 약 44,000m<sup>2</sup> 공간은 보관창고, 화물 분류시설 및 운영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
  - 새로 도입될 최신의 화물 분류기계는 시간당 15만개를 처리할 수 있어 과거보다 화물 처리 생산성이 50% 이상 향상될 전망
  - 이번 달에 시작되는 물류센터 공사는 2014년 4분기에 종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확장 이후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의 물동량까지 처리하여 유럽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

자료 : [www.postandparcel.info](http://www.postandparcel.info), 2013.12.10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[hongwon@kmi.re.kr](mailto:hongwon@kmi.re.kr))

## □ CMA CGM, 유럽 및 지중해-서아프리카 서비스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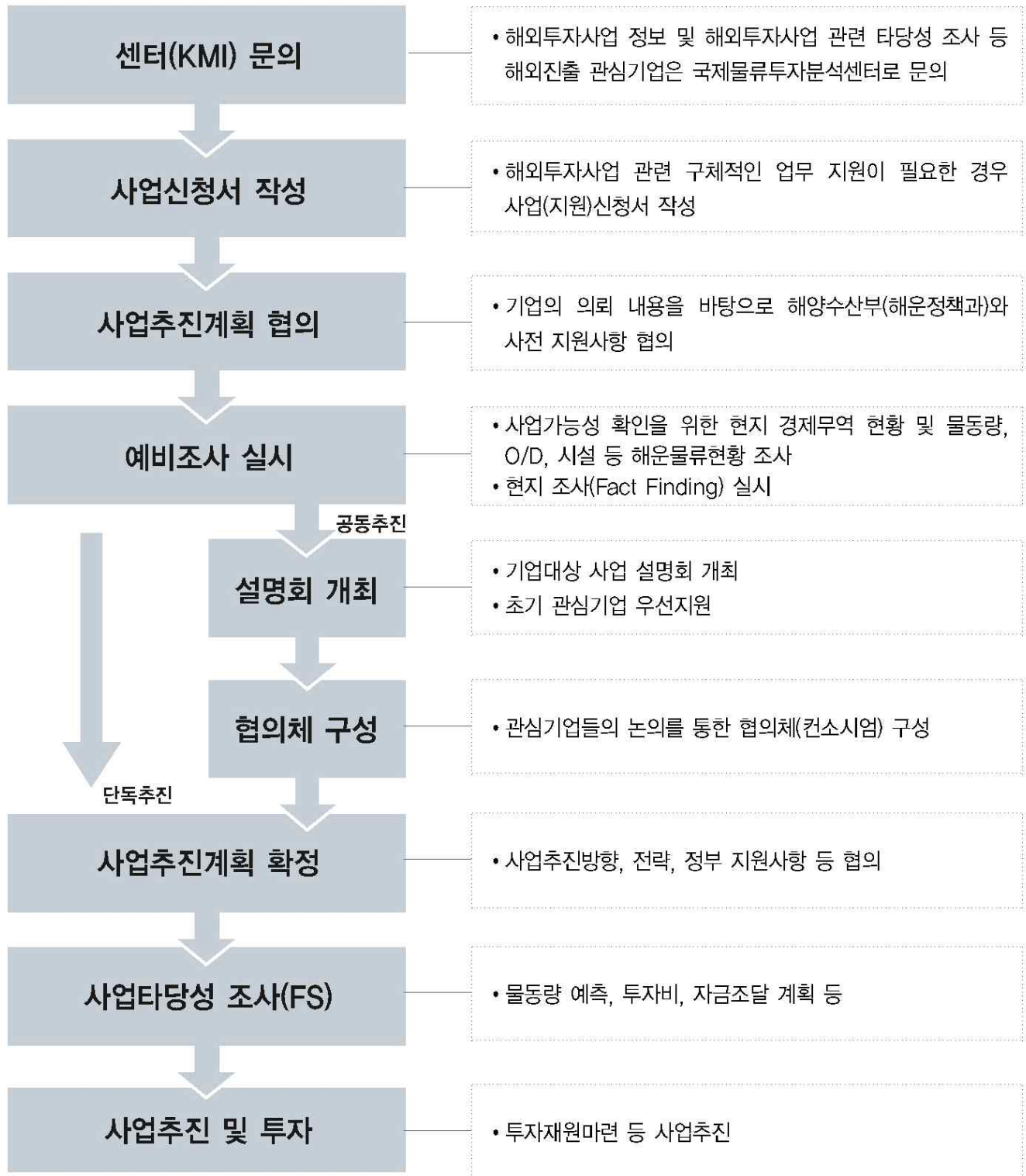
- CMA CGM 그룹은 유럽 및 지중해 지역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향하는 운항서비스 개편 계획 발표
  - 이번 개편은 서아프리카 시장과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목적
- CMA CGM 그룹이 제공하는 5개 서비스 개편과 관련 기존 PC Weekly Service에 영국과 나이지리아 기항이 추가되며, 3,500TEU 급 7척 투입 예정
  - PC Center Service에 2,500TEU 급 5척, PC North Service에 1,600TEU 급 4척, PC South Service에 2,000TEU 급 5척, 그리고 Anogola Shuttle Service에 2,000TEU 급 5척이 각각 투입되어 서비스 제공
- 탄자니아는 CMA CGM의 장거리 항로 운항에 있어 아프리카 허브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
- CMA CMG은 유럽-서아프리카 서비스 개편을 통해 유럽-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

자료 : [www.marinelink.com](http://www.marinelink.com), 2013.12.9.

민경창 연구원 (☎ 02-2105-2741, [kcmin0525@kmi.re.kr](mailto:kcmin0525@kmi.re.kr))



## 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\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